

폭력의 연쇄반응: 구약의 성폭력 내러티브 연구*

백승훈(송실대)

트리블(P. Trible)의 「공포의 텍스트」(*Texts of Terror*)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네 여성의 끔찍한 고통에 관한 정당한 관심을 요청했다: 하갈(창 16:1-16; 21:9-21), 다윗의 딸 다말(삼하 13:1-22), 성폭력을 당하고 살해당한 이름 없는 여성(삿 19:1-30), 입다의 딸(삿 11:29-40).¹ 이들의 아픔이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는 성서해석의 역사에서 가부장적인 관심사가 지배적이었던 영향이 있을 것이다. 트리블은 다른 책에서 창세기 2-3장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살펴보면서 “수 세기 동안 이러한 여성혐오적인 읽기는 정경성을 획득해 왔다”고 까지 말한다.² 하지만 기존의 성서해석이 남성중심적이었다고 해서 성서 자체가 여성에게 가

* 이 논문은 제122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2023년 4월 21일)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Phyllis Trible, *Texts of Terror: Literary-Feminist Readings of Biblical Narratives* (Philadelphia, PA: Fortress, 1984). 「공포의 텍스트」(도서출판 100 역간).

2 Phyllis Trible,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Philadelphia, PA: Fortress, 1978), 73. 「하나님과 성의 수사학」(알맹이 역간).

해진 성폭력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승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구약의 세 성폭력 본문을 분석하여 각 내러티브가 처음에 일어난 강간에서 이어지는 ‘악의 연쇄 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논증한다. 성서는 강간으로 시작된 폭력이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1. 성폭력 본문에 대한 기존의 해석

1)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중요하지 않게 다루는 해석

세 강간 내러티브(창 34: 19; 삼하 13)의 해석사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자체는 그리 주목받지 못해 왔다.³ 더 큰 내러티브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여겨져 온 것이다. 디나가 당한 강간(창 34)은 시므온과 레위가 자행한 학살의 “배경”으로만 이해된다.⁴ 이 본문의 핵심은 야곱과 두 아들 사이의 갈등이며, 따라서 해석의 “가장 중요한 단서”는 시므온과 레위에게 내려진 야곱의 저주(창 49:5-7)라는 관점도 있다.⁵ 또는 내러티브의 의도가 시므온 및 레위 지파와 세겜 성읍 사이의 유사 이전 갈등을 보이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정치적 갈등을 평범한 사람들 사이

3 초기 교회에서 종교개혁까지의 해석사는 Joy A. Schroeder, *Dinah's Lament: The Biblical Legacy of Sexual Violence in Christian Interpretation* (Minneapolis: Fortress, 2007)을 보라. 슈뢰더는 해석자들이 어떻게 성폭력의 현실과 심각성을 축소하고 때로는 부인해 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해석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강간에 대한 문화적 관점으로 그렇게 해 왔다. Schroeder, 위글, 2. 특히 창세기 34장에 대한 해석사는 권지성, “디나 사건에 대한 비평학적 접근법들(창세기 34장),” 23-43을 보라.

4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0), 310-317.

5 Terence E. Fretheim, “The Book of Genesis: Introduction, Commentary, and Reflections”, Leander E. Keck (ed.), *NIB*, Vol. 1 (Nashville, TN: Abingdon, 1994), 576-577.

의 “몇 가지 재앙” 이야기를 담은 사화(史話, saga) 형식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⁶ 이런 식으로 디나가 당한 성폭력은 중요한 것으로 다뤄지지 않아 왔다.⁷ 또한 세겜의 동기는 사랑으로 간주된다. 세겜은 “디나의 강간범이자 사랑했던 사람,”⁸ “애정이 많은 젊은이,”⁹ “디나를 향한 순수한 사랑(agape),”¹⁰ “순수하게 사랑에 빠진,”¹¹ “디나에게 하릴없이 무장 해제된”¹² 등의 표현으로 묘사된다. 성폭력의 동기를 사랑이라 보는 것은 그 행위의 폭력성과 잔인함을 희석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내레이터는 세겜에 대해 어떠한 긍정적인 평가도 내리지 않는다. 오히려 시므온과 레위의 입을 빌려 디나를 매춘부 취급했다며 비난한다(창 34:31). 매춘부 취급은 사랑이 아니다. 디나와 세겜의 “정사(liaison)”는 이스라엘과 가나안인들의 가까운 관계에 대한 상징이라는 관점도 있다.¹³ 이러한 주장들은 결과적으로 디나의 아픔을 중요하지 않게 다루는 것이다.

사사기의 이름 없는 여성¹⁴의 내러티브(삿 19-21장)는 전통적으로

-
- 6 Gerhard von Rad, *Genesis: A Commentary* (Philadelphia, PA: Westminster, 1972), 334-35.
- 7 박유미는 사건의 명칭을 피해자의 이름 대신 가해자의 이름으로 부른다. 가해자는 사라지고 오히려 피해자의 신상에만 관심이 쏠리는 현실에서 적절한 시도이다. 하지만 성서 텍스트의 피해자들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지칭한다. 참조. 박유미, “성폭력,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구약의 ‘여성 성폭력-전쟁’의 패턴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70집 (2018) 126. 각주 1.
- 8 Fretheim, 윗글, 578.
- 9 Wenham, 윗글, 317.
- 10 Victor R.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 18-50* (Grand Rapids, MI: Eerdmans, 1995), 313.
- 11 James McKeown, *Genesis* (Grand Rapids, MI: Eerdmans, 2008), 158.
- 12 Nahum M. Sarna, *Genesis* (Philadelphia, P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234.
- 13 Walter Brueggemann, *Genesis* (Louisville, KY: John Knox, 1982), 274-275.
- 14 정대준은 사사기의 피해 여성뿐 아니라 다른 등장인물들도 레위인이나 장인으로 지칭될 뿐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것이 화자의 의도라고 주장한다. 의도적으로 고유명사를 언급하지 않아서 각 등장인물을 특정 집단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피해

‘부록’으로 분류되었다.¹⁵ 사사기 전체의 구조분석에 있어서는 유효한 관점이겠으나, 결국 끔찍한 사건을 겪고 살해당한 이의 고통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할 수 있다.¹⁶ 어떤 학자들은 정치적인 의미에 주목해 왔다. 19-21장은 지방 산당에 맞서 예루살렘 제의를 변호하고 사울 왕조에 대해 다윗 왕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¹⁷ 이름 없는 여성의 분리된 몸을 “지피들의 분열을 보여주는 이데올로기적 상징”으로 보기도 한다.¹⁸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에만 집중하는 이러한 관찰들이 유효하다고 해도 자칫 이 여성이 겪은 폭력과 고통을 간과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말이 당한 강간 이야기(삼하 13장)는 “왕위 계승” 내러티브(삼하 9장-왕상 2장)의 일부로 해석되어 왔다. 앤더슨(A. A. Anderson)은 “암논-다말 이야기는 단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반드시 왕위 계승에 대한 더 큰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⁹ 다말에게 가해진 비극적인 폭

여성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가 자기 딸을 불량한 종교 지도자를 상징하는 레위인에게서 떼어 놓기 위해 애썼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주장을 믿고 나가면 피해 여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레위인을 따라나선 것이 잘못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결국 피해자의 그릇된 행실이 성폭력이라는 결과를 불러온 것이라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셈이 되어 버린다. 정대준, “사사기 19-21장의 폭력적 사건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기”, 「구약논단」 90집 (2023), 112-120.

- 15 참조. David J. H. Beldman, *The Completion of Judges: Strategies of Ending in Judges 17-21*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7), 84-85 n. 3.
- 16 Carol A. Newsom et al., eds. *The Women's Bible Commentary* (London, UK: Westminster John Knox, 2014), 199. 유연희는 우리나라의 교회와 학계에서 행해져 온 사사기 21장 해석이 어떻게 무고한 희생자들의 고통에 침묵해 왔는지를 폭로한다. 유연희, “사사기 21장 모로 읽기: 아베스와 실로의 딸들을 기억하며”, 권지성 외, 「성폭력, 성경, 한국교회」 (서울: CLC, 2019), 90-116.
- 17 Marc Zvi Brettler, “The Book of Judges: Literature as Politics,” *JBL* 108 (1989), 395-418. 참조. Gale A. Yee, “Ideological Criticism: Judges 17-21 and the Dismembered Body”, in *Judges & Methods: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Minneapolis, MN: Fortress, 1995), 146-170.
- 18 Yee, 윗글, 167.
- 19 A. A. Anderson, *2 Samuel*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9), 172.

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암논과 아히노함과 압살롬 사이에서의 정치적 갈등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말 사건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더 큰 내러티브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다말이 당한 성폭력이 사소하게 다뤄지는 것은 아니다.

2) 내러티브가 가진 남성중심적 성격을 드러내려는 시도들

성폭력 내러티브 배후의 가부장적이고 심지어 여성혐오적인 성격을 폭로하려는 시도들도 있었다. 셰레스(I. Sheres)는 디나의 강간 내러티브가 여성에 대한 반감을 지닌 후대의 가부장적 편집자에 의해 편집되었다고 제안한다.²⁰ 엑섬(C. Exum)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레위인의 첩(삿 19)을 ‘발세베르’(Bath-sheber, 파괴의 딸)라고 부르며, 본문이 남성중심적 사고로 이 여성의 성적인 자율성(삿 19:2)을 모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²¹ 비록 레위인의 기만과 부도덕이 폭로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내레이터 자신이 레위인의 첩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 때문에 나온 레위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는 것이다.²² 폭스(E. Fuchs)는 창세기 34장과 사무엘하 13장을 분석하면서 이 내러티브들이 디나와 다말이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가한 위협을 강간이라는 도구를 통해 제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디나는 부족의 조상이 될 기회를 잃었고, 다말은 다윗의 후계자가 될 기회를 박탈당했다.²³ 이들은 성폭력 내러티브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성서가 고대의 가부장

20 Ita Sheres, *Dinab's Rebellion: A Biblical Parable for Our Time* (New York: Crossroad, 1990), 3.

21 J. Cheryl Exum, *Framed Women: Feminist (Sub)versions of Biblical Narratives* (Valley Forge,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3), 176-184.

22 Exum, 윗글, 187.

23 Esther Fuchs, *Sexual Politics in the Biblical Narrative: Reading the Hebrew Bible as a Woman* (London, UK: Sheffield Academic, 2000), 200-224.

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성폭력 내러티브들이 여성에 대한 부당한 취급을 용납하고 있다는 주장은 각 내러티브의 문학적 기능을 오해한 것이다.

3) 세 개의 성폭력 본문들에 대한 비교분석적 접근들

베이더(M. A. Bader)는 디나와 다말 이야기들 사이의 문학적 평행을 찾는다. **עָנָה** (아나/범하다), **נִבְלָה** (느발라/극악무도한 공격), **הִרְפָּה** (헤르파/수치)가 양쪽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²⁴ 그런데 베이더는 **עָנָה**의 의미가 성적인 폭력인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해를 당한 딸들과 그들의 형제들과 아버지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다가 빌하(창 35:22)와 다윗의 첩들(삼하 16:22)과 같이 더 넓은 문맥에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간과했으며 사사기 19장의 내러티브의 평행을 다루지 않았다. 야마다(F. Yamada)는 이 글이 다루는 세 본문에서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을 찾는다.²⁵ “히브리 성서의 세 강간 이야기는 강간에서 남성들의 과도한 폭력으로, 더 나아가 사회적 분열로 이어지는 유사한 전개 과정을 거쳐 움직인다”는 주장이다.²⁶ 악의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강간 → 남성의 과도한 폭력 → 사회적 분열. 야마다는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의 심각성과, 또 다른 여성들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폭력을 포착하지 못했다. 또한 사회적 갈등을 말하면서 오직 남성들 사이의 분열만을 다룬다. 그래서인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성서의 본문들은 여성들보다 남성들에게 더 관심이 있다. 여

24 Mary Anna Bader, *Sexual Violation in the Hebrew Bible: A Multi-Methodological Study of Genesis 34 and 2 Samuel 13* (New York: Peter Lang, 2006), 14-61.

25 Frank M. Yamada, *Configurations of Rape in the Hebrew Bible: A Literary Analysis of Three Rape Narratives* (New York: Peter Lang, 2008).

26 Yamada, 윗글, 138.

성을 향해 자행된 성폭력의 주제를 다룰 때조차 그러하다.”²⁷ 이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또 다른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박유미는 동일한 본문들을 살피면서 세 개의 성폭력 사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밝히고, 성폭력 사건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찾는다.²⁸ 가해자의 사과나 반성 없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로 행세하는 남성 보호자들, 남성 보호자들의 과도한 복수, 지도자와 하나님의 부재가 그것이다.²⁹ 하지만 박유미는 성폭력이 사회의 문제라는 점에 집중하고, 내레이터가 그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 논문은 박유미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면서, 각 내러티브에서 성폭력 사건이 어떻게 연쇄적인 악과 폭력으로 이어지는지에 주목한다. 또한 박유미가 제시한 패턴에서 빠져 있는 또 다른 여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과정을 밝힐 것이다.

2.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취급과 공동체적 갈등

1) 피해자를 이용함

(1) 디나

세겔은 디나를 성적으로 착취했다. 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그녀를 보았다(מָצָא אֶת דִּינָה [파야르 오타]) → 그녀를 취했다(אָחַז)

27 Yamada, 윗글, 138-139.

28 박유미, 윗글, 125-155.

29 윗글, 149-150.

נָשָׂא(뵈익카흐 오타)) → 그녀를 눅혔다(נָשָׂא נִשְׂבָּהּ(뵈이쉬카브 오타)) → 그녀를 강간했다(נָשָׂא נִשְׂבָּהּ(뵈여안네하)).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은 심각성을 점점 고조시키면서 세겜이 디나에게 가한 폭력의 잔인함을 강조한다.³⁰ 동사 נָשָׂא(라카흐/취하다)는 남자가 아내를 맞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³¹ 하지만 결혼을 가리킬 경우 대개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전치사가 빠져 있다.³² 이 단어는 제사에 바쳐진 고기(삼상 2:16), 전쟁의 전리품(삿 5:19; 삼하 8:8), 언약궤(삼상 5:1), 성읍들(민 21:25; 신 3:14; 수 11:19; 삼상 7:14; 삼하 8:1) 등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³³ 여기에서는 맥락상 강제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어떤 학자들은 נָשָׂא נִשְׂבָּהּ에서 동사 נִשְׂבָּה(샤카브/눅다)가 반드시 강제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그저 누군가와 눅거나 눅히는 행위라고 말한다.³⁴ 이는 칠십인역이 נָשָׂא를 μετ' αὐτῆς(“그녀와 함께”)로 옮긴 것을 따르는 것이다. 즉, 직접목적격 조사와 삼인칭 여성접미사가 결합한 נָשָׂא 대신 전치사에 접미사가 붙은 נָשָׂא로 읽어 중립적 의미인 “그가 그녀와 눅었다”로 읽는 것이다. 하지만 נִשְׂבָּה 뒤에 곧바로 강압적으로 모욕 주는 행위를 나타내는 נָשָׂא 동사의 피엘 형태가 나온다. 여성에게 모욕적인 행위가 수반되고 있으므로 “그녀와 눅었다”보다는 נָשָׂא를 목적어로 읽어 성폭력을 의미하는 “그녀를 눅혔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³⁵

30 Sarna, 234.

31 Bader, 윗글, 26.

32 NIDOTTE, 2:807.

33 NIDOTTE, 2:808.

34 Bader, 윗글, 26; Ellen J. van Wolde, “Does ‘innā Denote Rape?”, VT 52 (2002), 541.

35 Susanne Scholz, *Rape Plots: A Feminist Cultural Study of Genesis 34* (New York: Peter Lang, 2000), 136; Wenham, *Genesis 16-50*, 306; Yamada, 윗글, 38-39.

베이더는 **הַכּוּחַ**를 “폭력을 가하다” 혹은 “범하다”로 번역하면서, 내레이터가 디나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므로 세겔이 디나에게 가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성폭력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³⁶ 하지만 디나의 감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세겔의 행위가 성폭력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베이더의 판단은 피해자에게 소위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정형적인 반응이 아니라 해서 피해가 사라지는 않는다. 볼데는 디나가 당한 모욕은 강간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지위 하락이라고 본다.³⁷ **הַכּוּחַ**의 피엘형태 **הִכּוּחַ**(인나)는 대상자를 사회적 의미에서 아래쪽으로 위치이동시키는 것을 가리키므로 현대 영어에서 개인적, 신체적, 심리적 의미영역에 해당하는 단어 rape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이다.³⁸ 그러나 이것은 강간(rape)의 의미를 지나치게 현대 서구적 관점에서만 본 것이다. 강간 피해자가 자신의 평판을 고려하여 피해를 숨겨야만 하는 사회에서는 강간이 가지는 의미와 볼데가 말한 히브리 성서에서의 **הַכּוּחַ**가 가지는 의미영역이 분명히 겹친다.

정일승은 세겔이 디나에게 가한 행위는 폭력을 동반한 강간이라기 보다는 결혼이라는 적합한 절차를 무시한 성관계였을 것이라고 본다.³⁹ 성관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로 인해 세겔과의 결혼 가능성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적, 혈통적 순수성이 위협받게 된 상황”이 문제라는 것이다.⁴⁰ 그는 원인론(etiology)적 관점에 접근하여, 본문의 주된 관심사는 강간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의 통혼이라고 주장한다.⁴¹

36 Bader, 윗글, 173.

37 Van Wolde, 윗글, 528-544.

38 윗글, 543-544.

39 정일승, “원인론적 관점에서 읽는 디나 이야기”, 『성경원문연구』 37호 (2015), 42-43.

40 윗글, 43.

41 윗글, 45-46.

창세기 내러티브의 주된 문제의식이 이방 민족과의 통혼에 있다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겔을 진멸하여 디나의 통혼을 막은 것은 칭송받아야 할 행위가 된다. 하지만 내레이터는 그들에 대한 어떠한 긍정도 나타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창세기의 끝부분에 가서 야곱의 입을 빌려 그들을 정죄하고 있다(창 49:5-7).

벡텔(L. Bechtel)은 매춘부는 강간을 당하지 않는다며, 시므온과 레위가 “우리의 자매가 매춘부처럼 취급받아야 합니까?”(창 34:31)라고 질문한 것은 강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⁴² 심지어 디나가 부족의 경계를 벗어났다며 피해자를 비난하기까지 한다.⁴³ 그러나 본문에서 디나의 행위를 비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매춘부라도 명시적인 동의 없는 강제적 성관계는 강간이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매춘부(גַּזְזִית(조나))로 오인하고 성관계를 제안한다. 매춘부로 분한 다말이 거래에 동의했기 때문에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 디나가 매춘부처럼 취급되었다는 진술은 세겔이 디나를 먼저 범한 이후에 야곱에게 디나를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야곱과 디나의 형제들은 디나가 부도덕한 행실을 보였다고 비난하지 않는다. 디나는 세겔에게 성적으로 착취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세겔의 아버지 하몰 역시 디나의 고통을 이용하려고 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호의적이다. 그들이 이 땅에 살게 하고, 그 안에서 거래하게 하자. … 그들의 가축과 재산,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는가?”(창 34:21-23a) 하몰은 자기 부족의 경제적 이익과 안전을 위해 디나의 아픔을 기회로 삼는다. 이는 첫 강간 이후 자행된 또 다른 폭력이다.

디나의 형제들은 집단으로서의 가족 전체에게만 관심이 있었지 디

42 Lyn M. Bechtel, “What if Dinah is not Raped? (Genesis 34)”, *JSTOT* 62 (1994), 31.

43 윗글, 32.

나 개인에게는 무관심했다. 그들이 화가 난 이유는 세겜이 “야곱의 딸과 누워서 이스라엘을 크게 모욕”(창 34:7)했기 때문이라고 제시된다. 그들은 오직 이스라엘, 곧 그들의 집단에만 관심이 있었다.

여기서 디나를 ‘야곱의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형제들이 모욕감을 느낀 부분이 디나를 학대한 것 자체가 아니라 야곱의 딸로서의 디나의 지위를 손상한 것임을 암시한다. ‘야곱의 딸’이라는 언급은 세겜이 디나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은 결국 디나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소녀 자신이 당한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침해가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명예가 중요한 것이다.⁴⁴

디나의 형제들뿐 아니라 야곱 역시 디나가 당한 일을 부족에게 불명예를 가져온 것 또는 종교적인 더럽힘으로 보면서 디나에게 미친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영향에는 무관심하다.⁴⁵

피해자에 대한 형제들의 무관심의 두 번째 증거는 그들이 결과적으로 디나의 결혼을 깨버렸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수용될 수 없지만, 신명기는 강간범과 피해자의 결혼을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으로 제시한다(참조. 신 22:22-30).⁴⁶ 이것을 야곱 시대에 적용할 수 있다면 디나의 형제들은 이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건 결과적으로 디나의 고통을 가중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형제들은 성읍을 약탈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창 34:28). 더 나아가 성읍 모든 어린아이와 여자를 강제로 잡아가서, 디나에게 가해진 성폭력과는

44 Fuchs, 윗글, 213-214.

45 이영미, “성서가 들려주는 성폭력, 새롭게 읽기: 디나 이야기(창세기 34장)”, 『神學研究』 제74집 (2019.6) 28-32.

46 Yamada, 윗글, 21-24.

무관한 이들에게 또 다른 폭력을 자행했다(창 34:29). 이 악탈은 형제들이 디나의 아픔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2) 사사기의 이름 없는 여성

기브아의 행악자들은 레위인을 불러내려고 한다. 그 목적은 직역하자면 “우리가 그를 알 것이다”(בְּנֵנוּנֵנוּ[베네다엔누])인데, 여기서 אָדָּא(야다/알다)는 성적인 의미이며 문맥상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리킨다. 하지만 성적인 욕망보다는 외지인들을 모욕하는 것이 근원적인 동기로 보인다. 레위인 일행을 보호하려던 노인도 에브라임 출신의 거류민이었다(삿 19:16). 기브아 사람들은 레위인 일행을 모욕하는 것을 통해 손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던 또 다른 타지인인 노인 역시 공격했던 것이다.⁴⁷ 기브아 사람들은 외지인을 모욕하려는 악한 의도를 레위인의 첩을 윤간하여 이뤄낸다. 이 여성은 수단이 되고 만 것이다. 노인은 자기 집에 방문한 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지만, 손님인 첩을 자기 딸과 함께 내어주겠다고 제안한다. 첩은 빼고 오직 레위인만 보호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한 것이다. 역시 이 여성을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그들을 욕보이고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그들에게 행하십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큼은 그런 더러운 일을 할 수 없소”(삿 19:24). 노인은 레위인 남성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의무를 위해 여성(들)을 이용하고 있다.

레위인 역시 이 여성을 이용한다. 노인의 제안이 거절되자 레위인은 갑자기 첩을 붙잡아(פָּיְחַ[하자크]) 그들에게로 내던져 버린다. 이 여

47 Erik Eynikel, “Judges 19-21, An ‘Appendix’: Rape, Murder, War and Abduction”, *Communio Viatorum* 47 (2005), 109-110

성을 폭력적인 행악자들에게 넘겨주려는 레위인의 적극적인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⁴⁸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붙잡아서 던져버린 행위는 “이 이야기가 시작된 이래 레위인과 아내 사이의 첫 번째 상호작용”이다.⁴⁹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이 여성이 밤새 강간당하는 사이, 그의 남편은 잠을 잘 잔 것으로 보인다. “그 여자의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 집 문을 열었다. 그의 첩이 문간에 손을 댄 채로 문에 누워있었다”(삿 19:27). 내레이터는 레위인의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아침과 문간에 놓인 아내의 손이 보여주는 참상을 대조하며, 독자들이 피해자에게 연민을 느끼게 하고 동시에 레위인을 비난하도록 이끌고 있다.⁵⁰ 기브아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내레이터는 레위인을 반복적으로 “그의 주인” 곧 “남편”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삿 19:26, 27), 피해자를 “그 아내”(הַאִשָּׁה[하잇사], 삿 19:26, 27)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아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남편이 모든 의무를 저버리고 비열하게 행동한 것에 대한 거센 비난이다.”⁵¹

레위인의 아내 이용은 이후에도 계속된다. 집에 돌아간 그는 칼을 들고 아내의 몸을 붙잡아(פָּרַח) 열두 조각으로 자른다. 이 여성에게 가해진 두 번째 폭력이다. 트리블은 실제로 그를 살해한 것은 레위인이었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⁵² 몸이 토막 나는 순간까지 아직 목숨이 붙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끔찍한 가능성일 뿐이지만, 한때 다정하게

48 Susan Niditch, *Judges: A Commentar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8), 193.

49 Jacqueline E. Lapsley, *Whispering the Word: Hearing Women's Stories in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5), 46.

50 Alice A. Keefe, “Rapes of Women/Wars of Men”, *Semeia* 61 (1993), 79-97.

51 박유미, 「내러티브로 읽는 사사기: 사사기의 구조와 의미에 관한 서사 분석」(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346.

52 Trible, *윳글* (1984), 80.

말했던 아내(삿 19:3)의 몸을 장사 지내기는커녕 자신의 목적을 위해 토막 내는 것은 패륜적 행위임이 틀림없다. 토막 난 몸은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 보내진다(삿 19:29). 경악한 이스라엘인들은 미스바에 모이는데(삿 20:1-2), 레위인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아내를 붙잡아 기브아의 범죄자들에게 던졌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다. 랩슬리(J. E. Lapsley)는 레위인이 “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며 그가 가진 깊은 자기중심성을 발견한다.⁵³ 자기만 아는 레위인은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여 자신의 복수를 위해 아내의 죽은 몸을 이용한 것이다.

(3) 사무엘하의 다말

암논은 성적 욕망을 채우려 다말을 학대한다. 암논은 다말의 설득에 굴하지 않고 결국 다말을 억지로(נָפְּץ [인나]) 납힌다(נָחַץ אֶת־בְּתוּלָתוֹ [바 이쉬카브 오타]).⁵⁴ 강간으로 욕정을 채운 암논은 돌변하여 다말을 내쫓는데(삼하 13:17-18), 이는 암논의 감정이 결코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삼하 13:1). 다말은 두 가지 이유를 대며 암논의 마음을 돌리려 한다. 아버지 다윗이 둘을 결혼하게 할 것이라는 점과(삼하 13:13b), 억지로 범한 후 버리는 것은 첫 성폭력보다 더 나쁘다는 점이다(삼하 13:16). 암논이 진심으로 다말을 사랑했다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말을 성욕 또는 지배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할 뿐이다.

압살롬은 다말에게 침묵을 종용한다(삼하 13:20). 다말에게 강요된 침묵이 위로가 되지 못했을 것은 분명하다. 어떤 학자들은 압살롬이 자

53 Lapsley, 윗글, 51.

54 위에서 논했듯 같은 표현들이 창세기 34장에서도 사용되었다.

기 딸에게 다말이라는 이름을 준 것을 두고 그가 다말을 진심으로 위했다고 해석한다(삼하 14:27).⁵⁵ 그러나 압살롬의 침묵 강요가 낳은 결과는 분명하게 부정적인 언어로 서술된다. “그래서 다말은 그 형제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삼하 13:20b). 여기서 다말의 상태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단어 **מִצְרֵי**(샤렘)은 사무엘서 전체에서 이곳 외에 아스돗이 야훼의 종기로 인해 폐허가 된 상태를 나타낼 때만 사용되었다(삼상 5:6).⁵⁶ 다말이 압살롬의 집에서 폐허가 된 성읍과도 같이 비참하게 지냈다는 것은 압살롬이 다말의 피해와 상처 입은 감정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말을 가만히 있게 한 것은 암논을 죽일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일 수 있다.⁵⁷ 그는 다말의 아픔에는 무관심했고 자신의 복수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다말을 이용했다.⁵⁸ 압살롬이 딸을 다말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그의 다말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지 않는다. 다말이 내러티브에서 사라지고 이야기의 중심이 압살롬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지점에서 다말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암논의 다말 강간 사건으로 시작된 비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는 기능을 한다.⁵⁹

55 Harry A. Hoffner Jr., *1 & 2 Samuel* (Bellingham, WA: Lexham Press, 2015), 2 Sam 14:27. 한편 이은애는 압살롬이 딸에게 다말이라고 이름 붙인 것을 두고 “다말의 삶은 계속된다”고 말한다. 다말이 그저 희생자에 머물지 않고 성폭력의 생존자로 살아남는다는 해석은 의미 있지만, 자칫 압살롬이 다말을 구해주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압살롬은 다말을 침묵시키고 이용한 또 다른 가해자이다. 참조. 이은애, “권력과 성폭력: 사무엘하 13:1-22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73 (2019) 236-237.

56 A. Graeme Auld, *1 & 2 Samuel: A Commentar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11), 480.

57 손종희는 다말과 암논이 결혼하면 왕위 계승 다툼에서 암논에게 밀릴 것을 염려한 압살롬이 이를 막으려 했다고 본다. 손종희, “**מִצְרֵי מִצְרֵי**: 다윗 왕위 계승 순서의 뒤틀림,” *구약논단*, 60집 (2016), 103-104.

58 이은애, *윗글*, 235.

59 Auld, *윗글*, 497.

2) 무책임한 침묵과 갈등

(1) 야곱

야곱은 디나의 아버지로서 성폭력을 당한 딸을 돌보고 위로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사건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딸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딸에게 가해진 성폭력은 아버지의 불명예와 모욕으로 간주되었다. 신명기는 누군가가 약혼하지 않은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다가 발각되면 오십 세겔을 여성의 아버지에게 물고 결혼하라고 명한다(신 22:28-29). 이때 아버지에게 지불되는 돈은 정상적인 결혼이 가능했다면 받았을 신붓값(bridal-price)에 대한 보상이다.⁶⁰ 유사한 풍습이 야곱 시대에 적용될 수 있다면, 야곱은 세겔과의 결혼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섰어야 하지만 협상을 이끄는 것은 디나의 형제들이고 야곱은 계속 침묵한다. 내레이터는 야곱을 지칭하면서 이스라엘과 야곱이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한다. “세겔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큰 모욕을 주었는데, 그러한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창 34:7). 웬햄(G. Wenham)은 내레이터가 야곱의 옛 이름과 새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야곱의 수동적 태도를 더욱 기이하게 보이게 한다고 지적한다.⁶¹ 야곱의 첫 능동적 반응은 시므온과 레위가 평화를 깬다며 비난하는 것이다.⁶²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로지 자신의 평화였던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에게 반문한다. “우리 자매가 매춘부처럼 취급당하는 것이 옳습니까?”(창 34:31). 그들이 볼 때 디나가 당한 성폭력에 야곱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하물의 제안을 받

60 Jack R. Lundbom, *Deuteronomy: A Commentary* (Grand Rapids, MI: Eerdmans, 2013), 638.

61 Wenham, *읽글*, 312.

62 Sarna, *읽글*, 238.

은 것은 디나를 매춘부로 취급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질문은 세겜과 야곱을 동시에 정죄하는 것이다.⁶³ 성폭력이 아버지 야곱과 그 아들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 것이다.⁶⁴ 야곱은 아들들의 질문에 여전히 불길한 침묵으로 일관한다.

(2) 레위인

레위인의 첩은 노인과 불량배들 사이에 협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 자신의 운명이 걸린 협상 과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노인이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주려고 제안했을 때, 그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수동적 침묵으로 자기 아내를 넘기려는 악한 계획에 동의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내 손을 잡아 폭도들에게로 몰아내기까지 한다. 그 끔찍한 밤이 지난 후에는 아내의 몸을 토막 내, 그때까지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던 이를 영원히 침묵하게 만든다. 그는 이제 자기 아내의 죽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을 기만하는 것이었다. 레위인의 침묵은 이름 모를 여성을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여성에게 강요된 침묵과 그의 죽음에 대한 거짓은 또 다른 재앙인 심각한 내전으로 이어진다.

(3) 다윗과 압살롬

다윗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다말이 당한 강간에 침묵한다. “다윗 왕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매우 화가 났다. 그러나 그는 그 아들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장자여서 사랑했기 때문이다”(삼하 13:21).

63 윗글, 317.

64 Yamada, 윗글, 65.

다윗은 성폭력의 가해자인 암논과 피해자인 다말 모두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또한 그가 다말을 자신의 처소로 보내달라는 암논의 요청을 승인했기 때문에 더더욱 책임이 있었다(삼하 13:6-8). 다윗은 화가 났지만, 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야곱과 똑같이 다윗은 지극히 수동적일 뿐이다. 그의 수동적인 침묵은 결과적으로 압살롬의 복수를 유도한 셈이 되었다.⁶⁵ 침묵한 것은 압살롬도 마찬가지였다. “압살롬이 암논에게 좋다 나쁘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삼하 13:22). 사건 초기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다말조차 압살롬에 의해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모든 불길한 침묵은 다가올 형제 살해와 아들의 반역이라는 비극들을 예견하게 한다.

3. 폭력의 연쇄: 여성에게 가해진 추가적인 폭력

1) 창세기: 세겔 성읍의 여성들, 그리고 빌하

이처럼 최초의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은 이어지는 폭력의 연쇄반응,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촉발한다. 디나에 대한 야곱의 무관심은 야곱과 그 아들들 사이에 갈등을 초래했다. 또한 두 형제의 복수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히위 사람들 사이의 사회정치적 갈등을 증폭시켰다. 경제적 이익을 향한 다른 형제들의 탐욕은 세겔 성읍의 여성들과 아이들을 희생자가 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야곱의 가족 중에서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다. 라헬의 죽음 이후 르우벤은 빌하와

65 Bruce C. Birch, “The First and Second Books of Samuel”, Leander E. Keck (ed.), *NIB*, Vol. 2 (Nashville, TN: Abingdon, 1998), 1305.

동침한다(창 35:22). 아버지의 첩과 아들의 동침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이 사건이 야곱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벰엘에서 제단을 쌓은 이후(창 35:1-15) 발생했다는 것 역시 놀라운 점이다. 야곱이 벰엘로 올라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오래된 서원(창 28:20-22)을 이뤘으므로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여성에 대한 성적인 행위가 동반되었다는 점, 야곱의 지속적인 침묵,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의 갈등은 이 사건을 디나 사건과 연결하여 읽게 한다. 빌하가 성관계에 대해 동의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누군가와 동침한다는 진술이 반드시 성폭력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르우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빌하에게 관계를 강요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빌하의 지위는 자기 주인인 라헬이 죽은 후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르우벤이 이런 상황을 이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르우벤의 동기가 성적이라기보다 정치적이란 데에 많은 주석가들이 동의한다.⁶⁶ “르우벤은 빌하를 범하여, 라헬이 죽었다고 해서 빌하가 자기 어머니[레아]를 밀어내고 첫째 부인이 되는 것은 물론, 심지어 경쟁상대가 되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⁶⁷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빌하는 르우벤의 목적에 수단으로 다뤄진 것이다. 이 단락에서 빌하는 첩을 의미하는 פִּילְגָּשִׁית(필레게쉬)로 불린다. 더구나 그 뒤에 이어지는 야곱 아들들의 목록에서 단과 납달리는 “빌하, 곧 라헬 여종의 아들들”(창 35:2)이라고 불린다. 앞에서 빌하를 야곱의 아내(רֵעָה[잇사], 창 30:4)라고 부른 적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르우벤의 의도는 빌하의 아내 지위를 박탈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빌하는 마치 압살롬에게 강간당한 다윗의 후궁들처럼 “살아있는 과부 상태”로 살았을 것이다(삼하 15:16;

66 Brueggemann, 윗글, 284; Fretheim, 윗글, 585; Hamilton, 윗글, 343-44; Sarna, 윗글, 244-45; Wenham, 윗글, 327-28.

67 Sarna, 윗글, 244.

16:22; 20:3).⁶⁸ 빌하의 삶은 파괴되었고 비참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행위는 아버지에 대한 큰 모욕이었으므로 르우벤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한 것이었다. 르우벤이 이토록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디나가 당한 성폭력에 대해 야곱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했던 것이 있을 수 있다.⁶⁹ 다른 식으로도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할 수 있었겠지만 곧이 성적인 방식을 택한 것은, 성범죄에 무관심했던 야곱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역시 야곱은 르우벤이 한 일에도 침묵한다. 르우벤이 빌하에게 가한 범죄, 곧 여성에게 가해진 추가적 폭력은 디나의 고통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뒤 일어나는 폭력의 연쇄반응이라 할 수 있다. 디나의 아픔과 빌하의 고통에 대한 야곱의 두 번의 침묵 사이에는 야곱이 베엘에서 제단을 쌓는 일이 들어가 있다. 이는 야곱이 미뤄둔 서원(창 28:20-22. 참조. 31:13)을 성취하는 것이었다. 야곱이 서원에 따라 베엘에 제단을 쌓았음에도 또다시 성폭력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그만큼 디나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여파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자들은 야곱 내러티브를 읽으며, 베엘 제단 쌓기라는 긍정적인 요소도 디나 사건 이후 야곱 인생의 내리막길을 되돌릴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2) 사사기: 베냐민 지파의 여성들과 또 다른 600명의 여성들

이름 모를 여성에게 가해진 첫 폭력과, 그 남편에 의한 추가적인 범죄 역시 대량 학살과 여성에 대한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진다(삿 20-21장). 기브야의 불량배들을 넘기라는 요구를 베냐민 지파가 거부하자, 이스라엘 지파들은 전쟁에 돌입한다. 그들은 신탁을 받고(삿 20:18,

68 Sarna, 윗글, 244.

69 K. A. Mathews, *Genesis 11:27-50:26*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2005), 628.

23) 야훼가 그들과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전쟁을 시작했지만 두 번이나 패배한다(삿 20:21, 25). 이 두 번의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눈이 멀어 처음부터 하나님께 잘못된 질문을 던졌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신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⁷⁰ 이스라엘의 베냐민 진멸 전쟁은 야훼의 승인을 얻었던 것은 아니었을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하루에만 이만 오천 명의 용사를 죽인다(삿 20:46).⁷¹ 더 나아가 광야로 도망친 육백 명을 제외하고 베냐민 지파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학살하고 성읍을 불태워 버린다(삿 20:48). 본문은 살아남은 육백 명이 결혼할 사람이 없다는 진술(삿 21:7)을 덧붙이며 베냐민 성읍 모든 여자와 아이들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전한다. 한 사람에게 가해진 성폭력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전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악의 연쇄 사슬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베냐민 지파 모든 여자는 살해되었고, 나머지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 남성들에게 딸들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육백 명의 생존자는 결혼할 길이 없었다. 베냐민 지파의 멸절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지파들은 야베스 길르앗이 내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들어 그들을 공격하고 여자들을 납치한다. 그들은 야베스 길르앗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 사백 명만을 남기고 모든 남자와 결혼한 여자, 아이들을 살해한다(삿 21:10-12). 그렇게 납치해 온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의 남성들과 강제로 결혼시켰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았다(삿 21:14). 그러

70 Mark J. Boda and Mary L. Conway, *Judges: Longing for a Leader; Faltering in Faithfulness* (Grand Rapids, MI: Zondervan Academic, 2022), 821-823.

71 클라인(Lillain R. Klein)은 “내일 내가 그를(베냐민을) 너희들 손에 주리라”(삿 20:28)와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주었노라”(삿 1:2)를 비교하며 1장은 완료시제, 20장은 미완료시제라는 점에 주목한다. 즉,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약속되기는 했어도, 그들의 멸절이 약속되지는 않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Lillain R. Klein, *The Triumph of Irony in the Book of Judges* (Sheffield, UK: Almond Press, 1989), 183.

자 총회의 장로들은 실로로 가서 해마다 열리는 축제에서 춤을 추고 있는 이들을 잡아다가 결혼하라고 제안한다(삿 21:19-22).⁷² “결국 한 명을 향한 성폭력이 육백 명을 향한 성폭력이 된 것이다.”⁷³

3) 사무엘하: 다윗의 첩들

가족에 의한 성폭력과 그에 대한 아버지의 부당한 사후 처리는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한다. 압살롬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역을 감행한다(삼하 15-18장).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면서 열 명의 첩을 남겨 궁궐을 지키게 한다(삼하 15:16). 예루살렘을 차지한 압살롬에게 모사 아히도벨은 아버지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라는 계락을 내고 압살롬은 이를 실행한다(삼하 16:21-22). 다윗의 아내들은 대중들 앞에서 성폭력을 당했다. 나중에 남편 다윗이 돌아오지만, 그들의 운명은 여전히 가혹하기만 했다. 다윗은 자신이 마땅히 보호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후궁들을 가뉘버리고 전혀 찾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야만 했다(삼하 20:3). 그들은 압살롬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이어진 부당한 취급에 또다시 큰 고통을 당하고 말았다. 이

72 임효명은 장로들이 어떻게 성범죄의 “조력자”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밝힌다. 공동체의 권위 있는 이들이 명백한 성범죄를 제안할 뿐 아니라, 아내를 얻는 행위로 포장하여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러티브 자체가 납치와 성폭력에서 범죄성을 제거하고 있다는 임효명의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사사기 저자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라는 진술을 통해 여성들에게 가해진 폭력을 왕정 옹호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내러티브가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을 희석하고 있다는 임효명의 주장은 반박된다. 신명기 사사가 왕이 없는 상황의 무질서를 드러내기 위해 성폭력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폭력성을 희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드러지게 묘사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임효명, “성폭력 조력자들 연구: 사사기 21장, 사무엘하 13장, 16장 20-23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3집 (2022), 201-204.

73 Trible, 윗글 (1984), 83.

사건은 다윗이 밋세바에게 가한 성폭력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아히도벨과 밋세바가 친족관계였다면(참조. 삼하 11:3; 23:34), 다윗의 아내들을 공개적으로 강간하게 한 것은 밋세바가 당한 성폭력에 대한 복수일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밋세바 사건으로 인해 다윗에게 선고된 재앙의 성취이기도 하다(삼하 12:11-12). 하지만 밋세바 사건과 연결된다고 해서, 압살롬에 의한 다윗 아내 강간 사건이 다말 사건과 이어지고 있다는 이 글의 논지를 해치지 않는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지 않았다면, 또는 다윗이 암논을 제대로 처벌하고 다말의 피해를 적절히 회복했다면, 압살롬에 의한 다윗 아내들의 피해는 없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더 넓은 맥락에서는 밋세바에게 가해진 성폭력에서, 동시에 보다 좁은 맥락에서는 다말에게 가해진 성폭력에서 이어지는 악의 연쇄반응인 것이다.

4. 결론: 악의 연쇄반응

이처럼 세 가지 성폭력 내러티브에서 모두 처음의 성폭력은 악의 연쇄반응을 일으켰다. 여성에게 가해진 첫 성폭력은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취급으로 이어졌고, 심각한 갈등이 촉발되었으며, 여성이 포함된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폭력이 발생했다. 성서의 내레이터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연쇄반응을 묘사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을 비난하고 있다. 결론을 내리면서, 더 넓은 맥락에서도 각 내러티브를 살펴보면 논지가 더 선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야곱의 일대기(창 25:19-36:43)에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다룬 부분(창 25:19-33:17)은 두 사람이 만나 화해하는 장면에서 절정에 이른다.

다(창 33:1-17).⁷⁴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직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기도 한다(창 32:28, 30). 그후 마침내 에서와 화해를 하는 등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경험을 하지만, 베엘로 가서 오랜 서원(창 28:20-22)을 이루기보다 세겔에 정착한다. 세겔에서 디나에게 일어난 고통스러운 경험 이후에 야곱은 베엘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창 35:1). 이에 야곱은 베엘에서 제단을 세우지만(창 35:6-7), 거기서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를 잃는다(창 35:7-8).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재확인하지만,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을 겪는다(창 35:16-21). 곧이어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난다(창 35:22). 이야기의 중심이 요셉에게로 넘어가기 전, 야곱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는다(창 35:27-29). 야곱과 아들들과의 갈등, 그리고 아들들 사이의 갈등은 요셉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진다. 독자들은 이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의 시작점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새 이름을 얻고 에서를 만난 직후 일어났던 일로 보게 된다. 바로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과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독자들은 야곱이 겪은 험악한 인생의 사건 중 에서와 만난 이후의 일들은 여성에게 가해진 성폭력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다윗 역시 다말이 성폭력을 당한 후 어려움을 겪는다. 왕위 계승 내러티브를 읽는 독자들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겪는 많은 어려움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서 시작되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특히 압살롬과 암논의 골육상잔과 압살롬의 반역은 짧게는 다말의 강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맥락을 더 넓게 확장하면 다윗 자신이 저지른 여성에 대한 범죄, 곧 밧세바를 성적으로 착취한 것에서부터 다윗 인생

74 Fretheim 윗글, 571.

의 내리막길이 시작된 셈이다.⁷⁵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음 진술이 반복된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행하였다”(삿 17:6; 18:1; 19:1; 21:25).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끔찍한 일들로 사사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다.⁷⁶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묘사하기 위해 본문은 여성에 대한 성범죄로 시작되어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낳고 또 다른 여성들이 포함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잔혹한 폭력의 연쇄를 기록하고 있다. 실로에서 벌어진 여성 납치 사건을 두고 김희권은 이렇게 평한다. “사사기 저자는 이 사건이야말로 사사기의 정치적·도덕적·무정부 상황의 극치라고 말하며 사사 시대의 어두운 초상화를 완성한다.”⁷⁷ 극치의 혼란과 어두움을 그리는 시발점이 이름 모를 한 여성에 대한 강간인 것이다.

구약의 세 성폭력 본문은 다음과 같은 폭력의 연쇄반응을 보여준다. 여성에게 가해진 첫 성폭력 → 피해자에 대한 무관심과 부당한 대우 → 심각한 사회적 갈등 → 여성을 포함한 대상을 향한 추가적인 폭력. 이처럼 성서의 성폭력 내러티브들은 최초의 강간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묘사하여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75 박유미는 암논의 성폭력이 다윗의 밧세바에게 가한 성폭력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박유미, “왜 다윗은 다말의 부르짖음에 침묵했을까?: 암논의 성폭력 사건과 다윗이 암논에게 미친 영향,” 권지성 외, 「성폭력, 성경, 한국교회」(서울: CLC, 2019), 46-65.

76 Lapsley, 윗글, 37.

77 김희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여호수아, 사사기, 룯기」(서울: 복있는사람, 2007), 345.

참고문헌

- 김희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서울: 복있는사람, 2007).
- 권지성, “디나 사건에 대한 비평학적 접근법들(창세기 34장)”, 권지성 외, 「성폭력, 성경, 한국교회」(서울: CLC, 2019), 23-43.
- 박유미, 「내러티브로 읽는 사사기: 사사기의 구조와 의미에 관한 서사 분석」(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박유미, “성폭력,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구약의 ‘여성 성폭력-전쟁’의 패턴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70집 (2018), 125-155.
- 박유미, “왜 다윗은 다말의 부르짖음에 침묵했을까?: 암논의 성폭력 사건과 다윗이 암논에게 미친 영향”, 권지성 외, 「성폭력, 성경, 한국교회」(서울: CLC, 2019), 46-65.
- 손중희, “**וַיִּשְׁמַע ה' אֶת-בְּרִיחַ דָּוִד**’(왕상 1:5): 다윗 왕위 계승 순서의 뒤틀림”, 「구약논단」 60집 (2016), 98-131.
- 유연희, “사사기 21장 모로 읽기: 야베스와 실로의 딸들을 기억하며”, 권지성 외, 「성폭력, 성경, 한국교회」(서울: CLC, 2019), 90-116.
- 이영미, “성서가 들려주는 성폭력, 새롭게 읽기: 디나 이야기(창세기 34장)”, 「神學研究」 74집 (2019.6), 13-38.
- 이은애, “권력과 성폭력: 사무엘하 13:1-22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73집 (2019), 217-245.
- 임효명, “성폭력 조력자들 연구: 사사기 21장, 사무엘하 13장, 16장 20-23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3집 (2022), 188-230.
- 정대준, “사사기 19-21장의 폭력적 사건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기”, 「구약논단」 90집 (2023), 102-132.
- 정일승, “원인론적 관점에서 읽는 디나 이야기”, 「성경원문연구」 37호 (2015), 34-57.
- Anderson, A. A., *2 Samuel* (WBC 11;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9).
- Auld, A. Graeme, *I & II Samuel: A Commentary* (OT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11).
- Bader, Mary Anna, *Sexual Violation in the Hebrew Bible: A Multi-Methodological Study of Genesis 34 and 2 Samuel 13* (Studies in Biblical Literature 87; New York: Peter Lang, 2006).
- Bechtel, Lyn M., “What if Dinah is not Raped? (Genesis 34)”, *JSOT* 62 (1994), 19-36.

- Beldman, David J. H., *The Completion of Judges: Strategies of Ending in Judges 17-21* (Siphrut: Literature and Theology of the Hebrew Scriptures 21;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7).
- Birch, Bruce C., "The First and Second Books of Samuel", Leander E. Keck (ed.), *NIB*, Vol. 2 (Nashville, TN: Abingdon, 1998), 949-1383.
- Boda, Mark J. and Mary L. Conway, *Judges: Longing for a Leader; Faltering in Faithfulness* (Zondervan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Zondervan Academic, 2022).
- Brueggemann, Walter, *Genesis* (IBC; Louisville, KY: John Knox, 1982).
- Brettler, Marc Zvi, "The Book of Judges: Literature as Politics", *JBL* 108 (1989), 395-418.
- Els, P. J. J. S., "לָקַח", Willem A. VanGemeren (ed.), *NIDOTTE*, Vol. 2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7) 805-11.
- Exum, J. Cheryl, *Fragmented Women: Feminist (Sub)versions of Biblical Narratives* (JSOTSup 165; Valley Forge,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3).
- Eynikel, Erik, "Judges 19-21, An 'Appendix': Rape, Murder, War and Abduction", *Communio Viatorum* 47 (2005), 101-15.
- Fretheim, Terence E., "The Book of Genesis: Introduction, Commentary, and Reflections", Leander E. Keck (ed.), *NIB*, Vol. 1 (Nashville, TN: Abingdon, 1994), 319-674.
- Fuchs, Esther, *Sexual Politics in the Biblical Narrative: Reading the Hebrew Bible as a Woman* (JSOTSup 310; London, UK: Sheffield Academic, 2000).
- Hamilton, Victor R., *The Book of Genesis: Chapter 18-50*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1995).
- Hoffner Jr., Harry A., *1 & 2 Samuel* (Evangelical Exegetical Commentary; Bellingham, WA: Lexham, 2015).
- Keefe, Alice A., "Rapes of Women/Wars of Men", *Semeia* 61 (1993) 79-97.
- Klein, Lillian R., *The Triumph of Irony in the Book of Judges* (JSOTSup 68; Sheffield, UK: Almond Press, 1989).
- Lapsley, Jacqueline E., *Whispering the Word: Hearing Women's Stories in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5).
- Lundbom, Jack R., *Deuteronomy: A Commentary* (Grand Rapids, MI: Eerdmans, 2013).
- Mathews, K. A. *Genesis 11 :27-50:26* (NAC 1B;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 Publishers, 2005).
- McKeown, James, *Genesis* (Two Horizons Old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MI: Eerdmans, 2008).
- Newsom, Carol A., et al. eds., *The Women's Bible Commentary*, Revised and Expanded ed. (London, UK: Westminster John Knox, 2014).
- Niditch, Susan, *Judges: A Commentary* (OT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8).
- Rad, Gerhard von, *Genesis: A Commentary*, Revised ed.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PA: Westminster, 1972).
- Sarna, Nahum M., *Genesi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P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 Scholz, Susanne, *Rape Plots: A Feminist Cultural Study of Genesis 34* (Studies in Biblical Literature 13; New York: Peter Lang, 2000).
- Schroeder, Joy A., *Dinah's Lament: The Biblical Legacy of Sexual Violence in Christian Interpretation* (Minneapolis: Fortress, 2007).
- Sheres, Ita, *Dinah's Rebellion: A Biblical Parable for Our Time* (New York: Crossroad, 1990).
- Trible, Phyllis,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OBT; Philadelphia: Fortress, 1978).
- _____, *Texts of Terror: Literary-Feminist Readings of Biblical Narratives* (OBT; Philadelphia: Fortress, 1984).
- Wenham, Gordon J., *Genesis 16-50* (WBC 2;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0).
- Wolde, Ellen J. van, "Does 'innā Denote Rape?: A Semantic Analysis of a Controversial Word", *VT* 52 (2002), 528-44.
- Yamada, Frank M., *Configurations of Rape in the Hebrew Bible: A Literary Analysis of Three Rape Narratives* (Studies in Biblical Literature 109; New York: Peter Lang, 2008).
- Yee, Gale A., "Ideological Criticism: Judges 17-21 and the Dismembered Body", Gale A. Yee (ed.), *Judges & Methods: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Minneapolis, MN: Fortress, 1995), 146-70.

검색어

성폭력, 강간, 디나, 레위인의 첩, 다말, 연쇄반응

www.kci.go.kr

[ABSTRACT]

Chain Reaction of Violence: An Analysis of the Rape Narratives in the Old Testament

Seunghoon Baik
Soongsil University

In the history of interpretation of the three rape narratives in the Old Testament (Gen 34; Judg 19; 2 Sam 13), violence against women itself has been marginalized. On the one hand, these sexual crimes against the three women — Dinah the daughter of Jacob (Gen 34), Tamar the daughter of David (2 Sam 13: 1-22), and the unnamed woman who was handed over to be raped and slaughtered by her husband (Judg 19: 1-30) — have been understood as just a small part of larger narratives. On the other hand, some scholars have tried to reveal the patriarchal and even misogynistic ideology of the narrators behind these rape narratives. While the reception history of these texts has been affected by interpreters' androcentric agenda, it is not the case that the Bible is completely androcentric and thus unconcerned about the agony of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By exploring these tragic narrative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re is a similar frame of a chain reaction of violence in the narratives: the initial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 indifference and mistreatment of the victim → severe social conflict → additional violence against other victims including women. These biblical narratives are firmly against sexual violence upon women, as presented through their common structure of

www.kci.go.kr

evil chain reaction of violence triggered by the initial rape.

key words

sexual violence, rape, Dinah, concubine of the Levite, Tamar, chain reaction

투고일: 2023년 07월 18일

심사일: 2024년 01월 17일

게재 확정일: 2024년 02월 03일

www.kci.go.kr